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 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

일시 2017년 3월 25일 (토) 14:00-18:30

장소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주최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모시는 글

저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 뜻있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함께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 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건들, 중요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민감한 사건들, 문화와 예술을 비롯해 시민사회의 의미 생산과 관련한 많은 분야의 분쟁들이 사법절차에 회부되어 법원의 판단에 그 해결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과도하게 많은 갈등과 분쟁을 생산하고 있고 사회의 각 영역이 자체 내의 장치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분쟁의 해결을 위해 사법부에 호소하는 경향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과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으며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래의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기관의 공공성 회복과 증진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를 일깨워주었습니다. 그것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수행해야 할 책무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통해 진지하게 공부해온 법관들이 공정한 사법을 위한 필수적 조건인 법관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법관인사제도를 탐구하고 연구 결과 및 토의를 학술회의를 통해 공유하고자 하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업무와 작업장의 특성상 의견을 청취하기 힘든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한국 사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연구가 가지는 의의가 다대합니다. 연세대 법학연구원은 그러한 노력에 호응하여 국제적 비교를 통해 이 논의를 풍요롭게 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연세대 법학연구원은 작년 11월 「사법통치와 법치주의」 학술회의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폭증하는 사법 수요를 어떻게 설명하고 평가할 것인지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지는 학술행사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함께 법관인사제도를 주제로 개최함으로써 평소 관심을 기울여온 사법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나누시고 귀한 의견을 들려주심으로써 좋은 사법을 모색하는 법관들의 노력과 이를 학문적으로 지원하는 학계의 노력에 힘을 보태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이 철 우 올림

초 대 글

안녕하십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대법원 산하 전문분야연구회의의 하나로 창립된 법관들의 자발적인 연구단체로서, 현재 480여 명의 법관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창립 이후 법원 내부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실무상의 쟁점에 관한 토론과 연구를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 성소수자의 인권,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법원 안팎의 학술단체와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모습으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 함께 하는 올해 공동학술행사에서는,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 하에, 독일과 미국의 법관인사제도와 우리의 법관인사제도를 법관독립이라는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공동학술행사에서는 전제 법관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중 500명이 넘는 법관의 답변 결과를 반영한 연구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학자, 전문가, 시민사회 구성원이 함께 하는 공론의 장에서 우리 사법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법관인사제도를 성찰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엔이 퍼낸 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에 따르면, 한 사회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는, 그 사회의 사법부가 간섭과 제약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정도에 비례하여 보장된다고 합니다. 우리 연구회가, 이번 학술행사를 통하여, 사법부 독립을 공고히 하고 구체적인 재판에서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이진만 올림

프로그램

14:00 - 14:20	개회사 이철우 연세대 법학연구원 원장 인사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14:20 - 14:30	장내 정리
14:30 - 15:30	미국과 독일의 법관 인사제도 발제 발제 : 이종수 교수(연세대), 강용승 교수(연세대)
15:30 - 15:40	휴 식
15:40 - 17:10	대한민국의 법관 인사제도 발제, 지정토론 발제 : 김영훈 판사(서울고등법원) 토론 : 윤태석 교수(연세대), 차성안 판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하선화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17:10 - 17:20	휴 식
17:20 - 18:30	종합 토론, 자유 질의 및 폐회

오시는 길

